

발행인 : 소장 이 상 훈

발행처 : (사) 금융경제연구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층  
 tel: 02)6952-8688  
 fax: 02)6952-8700

# Issue & Report

Financial Economy Institute  
(FEI)NO. 2021-01  
(통권 84호)홈페이지  
<http://www.fei.or.kr>

## 노동동향

문 상 균\*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전공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본 금융보험업 노동시장 동향

#### <요약>

-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같은 기술 발전을 통한 금융 환경의 변화는 기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야기함
- 금융보험업 내 전공계열별 종사자 수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금융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전망해보고자 함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보험업 내 전공계열별 종사자 수 추세를 살펴본 결과, 공학계열 종사자 수가 2010년을 기준으로 2018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보험업의 업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공학계열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금융업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 공학계열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근무 기간이 1년 이내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2018년의 인문·사회계열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나 2018년 공학계열 취업자는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의 경우 공학계열 종사자의 월평균 임金的 연평균 증가율이 4.5%로 인문·사회계열 혹은 자연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를 통해 새로운 기술발전이 특정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공학계열 전공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꾸준히 나타나며, 공학계열 종사자의 근로조건 또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함

\* 경제학 박사, tel:02)6952-8688, e-mail: sgmoon@fei.or.kr

## I. 들어가며

최근 금융 환경은 금융과 IT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 산업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삼정KPMG에서 발표한 ‘2019 한국 핀테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관련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핀테크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기반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금융 관련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2010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공계열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의 추세를 살펴본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금융보험업의 변화가 고용 감소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기술발전을 통한 새로운 고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인력 수요가 전공계열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공계열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 추세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금융보험업 내부에서 전공계열에 따라 나타나는 고용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금융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II. 금융보험업의 전공계열별<sup>1)</sup> 종사자 현황

### 1)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전공계열별 비중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의 전공계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는 가구원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기마다 20만여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자료<sup>2)</sup>이다.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취업자의 학력과 전공계열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일자리에 대한 산업분류와 해당 일자리의 취업 시기

1) 전문대학 이상의 최종 학력 재학 시 전공계열

2)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별고용조사는 분기마다 조사가 이루어짐

그리고 월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 본 분석에 사용하기 적합한 자료이다. 본 분석에서는 취업자의 나이를 만 20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으며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먼저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전체 취업자의 전공계열 분포와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전공계열 분포를 아래의 <표 1>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의 전공계열 분포는 인문·사회계열이 3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30.1%, 자연계열이 10.4%를 차지한다.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전공계열 분포는 전체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고 그 뒤로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순서로 나타난다. 다만 전체 취업자의 전공계열 분포에 비해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63.5%로 비중이 매우 높고 공학계열의 비중이 16.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는 기존의 금융보험업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종사자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 중 개별 전공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사자 수 변화 추세를 살펴본다.

<표 1> 대졸 취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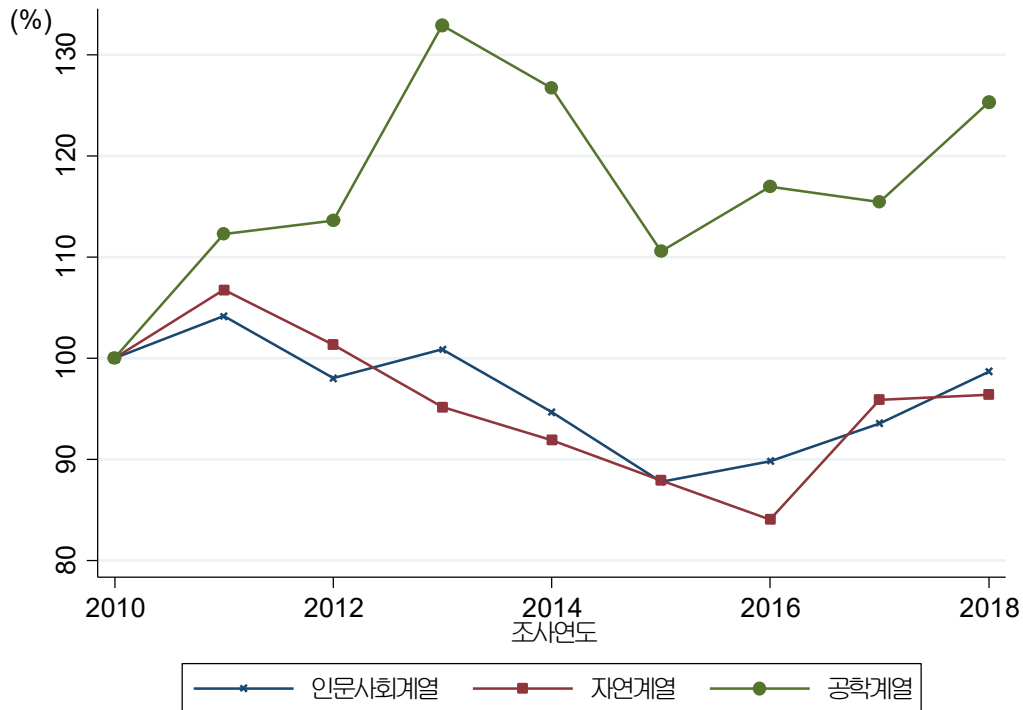
전공계열	비율	
	전체 산업	금융보험업
인문·사회계열	37.4	63.5
예술체육계열	9.8	4.7
교육(사범)계열	6.6	2.7
자연계열	10.4	10.2
공학계열	30.1	16.9
의약계열	5.7	2.0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 2) 금융보험업의 전공계열별 종사자 수 추세

금융보험업에 종사자 중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그리고 공학계열을 전공한 종사자 수의 변화를 아래 <그림 1>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는 2010년 종사자 수를 100으로 두고 2018년까지 각 계열의 종사자 수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금융보험업의 전공계열별 종사자 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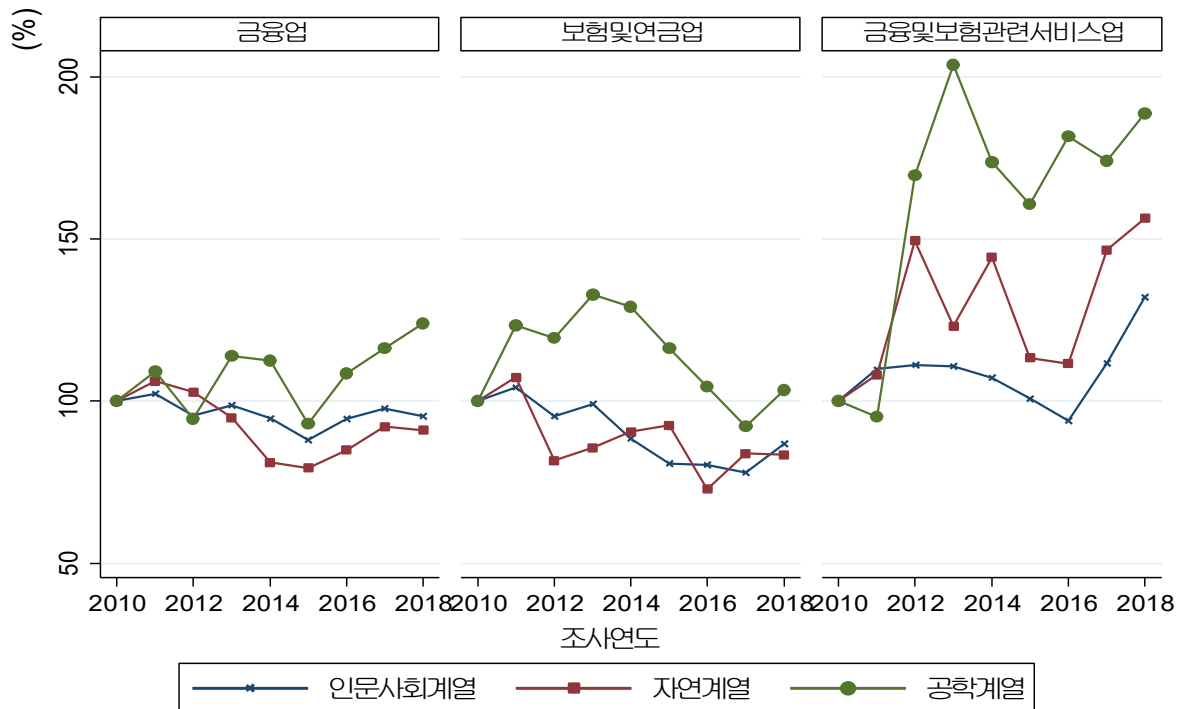
〈그림 1〉을 통해 추세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종사자 수의 경우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10년 종사자 수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계열 종사자 수 역시 인문·사회계열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반면 공학계열 종사자 수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5까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0년에 비해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공학계열 종사자 수는 2010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금융보험업 내 세 가지 중분류의 전공계열별 종사자 수 추세

금융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금융업과 보험 및 연금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지역별고용조사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보

협업 내 세 가지 중분류의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업이 약 50.0%, 보험 및 연금업이 31.5% 그리고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18.5%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 2>에서도 2010년 종사자 수를 100으로 두고 2018년까지의 전공계열별 종사자 수 추세를 세 가지 중분류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세 가지 중분류의 전공계열별 종사자 추세



<그림 2>를 통해 먼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2010년 종사자 수 대비 2018년의 종사자 수가 전공계열과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학계열 종사자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8년 88% 이상 증가하여 전체 금융보험업의 공학계열 종사자 수 증가를 주도한 업종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종사자 수가 2010년에 비해 2018년 감소하였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2010년과 2018년의 종사자 수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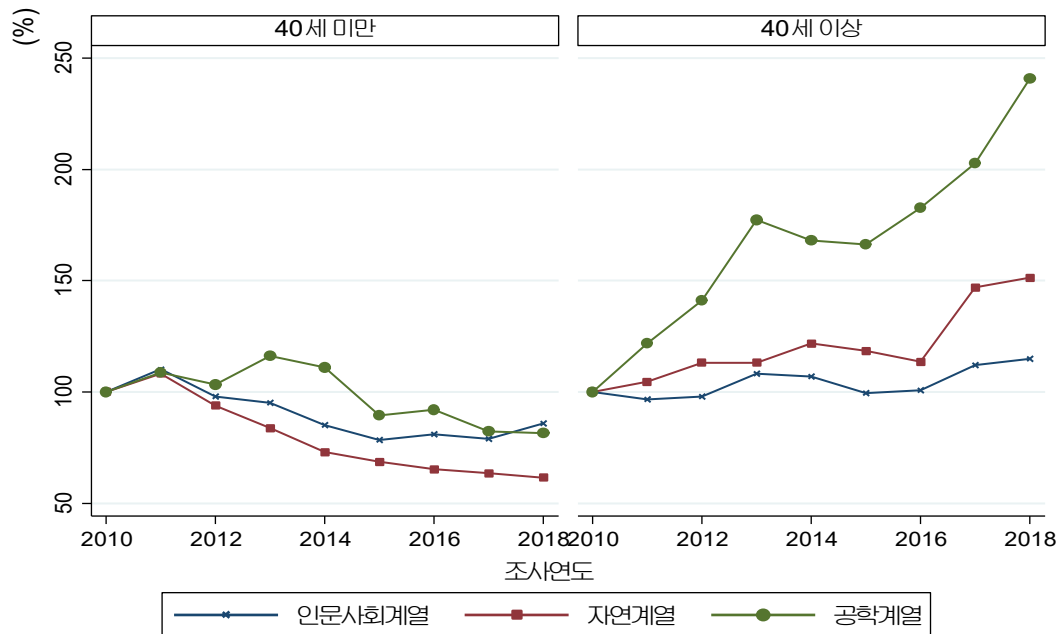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포함된 금융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의 인문·사회계열 종사자와 자연계열 종사자 수는 다

소 감소하였으나 공학계열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공학계열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대비 2018년 2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금융보험업의 연령대별 전공계열 종사자 추세

위의 분석을 통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 공학계열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융업에서는 2015년 이후 공학계열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에서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공학계열 종사자 수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연령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분석에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만 나이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를 나누어 분석을 시행한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연령대별 전공계열 종사자 추세



금융보험업의 40대 미만의 종사자 수는 세 가지 전공계열에서 모두 2010년에 비해 2018년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세 가지 전공계열 모두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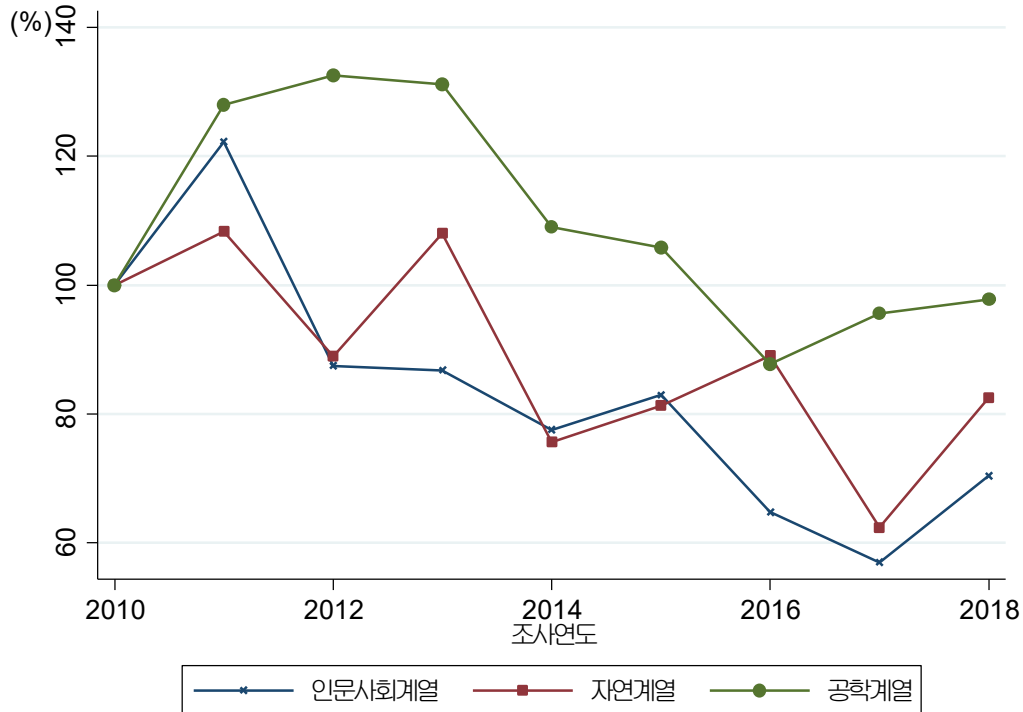
40대 이상 종사자 중 공학계열의 경우 2010년 종사자 수에 비해 2018년의 종사자 수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0세 이상 공학계열 종사자 수의 증가는 2010년 당시 상대적으로 공학계열 종사자의 비율이 낮았던 40대 이상에 비해 공학계열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30대가 2018년 당시 40세 이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조사 시점 당시 직장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학계열 종사자 수의 증가가 특정한 코호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40세 이상으로 편입하여 나타나는 결과 인지 혹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 Ⅲ. 현 직장의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의 전공계열 추세

앞서 살펴본 금융보험업의 공학계열 종사자 수 증가가 단순히 공학계열 비중이 낮은 연령대의 퇴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인지 신규 채용 혹은 경력직 채용과 같이 현 직장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종사자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공계열별 취업자 추세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 직장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즉,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공계열별 추세를 살펴보면 세 가지 계열 모두 2010년에 비해 2018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학계열의 경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근무 기간이 1년 이내인 취업자가 2010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년의 경우에도 2010년에 비해 근무 기간 1년 이내인 취업자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사회계열 종사자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8년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의 전공계열 현황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4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공학계열 취업자 수 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 871명에서 2018년 4,28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40세 이상 공학계열 종사자 수의 증가 추세가 단순히 기존 종사자의 연령 변화만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 IV. 금융보험업의 전공계열별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변화

앞선 분석에서는 종사자 수의 연도별 변화를 산업 분류와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추세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전공계열별 종사자의 월평균 임金の 변화를 통해 근로조건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인 전공계열별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변화는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2010년의 경우 공학계열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자연계열보다 오히려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계열별 월



평균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2.7%, 자연계열의 경우 3.0%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계열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공계열별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변화

조사연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연평균 증가율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연평균 증가율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연평균 증가율
2010	354		310		283	
2011	330		302		280	
2012	353		306		275	
2013	384		337		327	
2014	385	2.7%	336	3.0%	332	4.5%
2015	392		345		336	
2016	410		345		367	
2017	427		374		375	
2018	438		394		402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 V. 시사점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전은 금융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발전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 중 금융보험업의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행한다. 특히 금융과 IT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야기하는 인력 수요의 변화는 전공계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공계열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보험업의 고용 추세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인문·사회계열 종사자 수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8년 종사자 수가 감소했으나, 공학계열의 경우 오히려 종사자 수가 2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 공학계열 종사자 수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업체들의 증가<sup>3)</sup>가 공학계열 종사자 수 증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 및 저축

3) 조선일보, “국내 핀테크 기업 수 7년 새 5배 늘었다”, 2019년 5월 21일 기사 참조

기관이 포함된 금융업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 공학계열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혹은 IT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인력에 대한 금융업의 직접 고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8년 취업자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계열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에도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의 취업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학계열 종사자 수의 증가가 단순히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연령 구성 변화만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보다는 공학계열에 대한 인력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월평균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종사자 수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학계열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4.5%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금융 확산,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종사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전공계열 혹은 특정 산업 분류에서는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핀테크 기업들이 일부 포함된 산업 분류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은행 및 저축기관을 포함한 금융업도 2015년 이후 공학계열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학계열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빠르게 개선됨을 확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새로운 기술발전이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공학계열의 전문가를 위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근로조건 또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금융보험업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부문보다는 인력 수요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